

사랑하고 존경하는 한국심리학회 회원 여러분!

제 50대 한국심리학회 회장 후보로 출마한 침례신학대학교 장은진입니다. 훌륭한 많은 선·후배님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학회원분들의 추천을 받아 후보로 나오게 된 이유는 누구보다도 심리학회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많고, 우리 학회가 필요로 하고 앞으로 발전해야 할 부분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1986년 심리학 전공을 택한 이래로 한국심리학회는 물론, 우리 사회와 국민들에게 이바지를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국회, 유관 학회 및 기관과의 교류, 심리전문가와 학부 및 대학원생들과의 소통, 임상현장에서의 다양한 경험이 오늘 저를 이 자리에 서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제 50대 한국심리학회 회장이 된다면 다음과 같은 일들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첫째, 여러 분과학회의 협업을 기반으로 정부부처 및 유관 기관과 연계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심리학의 실용화와 대중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제가 현 49대 한국심리학회 부회장으로서, 또한 한국임상심리학회 부회장 및 정책기반 심리서비스 위원장, 한국학교심리학회 회장, 한국중독심리학회 부회장 등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많은 정부부처 및 유관 기관의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누구나 심리학의 사회적 필요성과 가치를 인정하고 있지만 아직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심리학 지식을 적용하고 실현할 방안이 부족한 상태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력의 선발과 관리, 심리검사의 개발, 심리치료 및 상담의 실시, 중요 국가정책의 결정과 실행 등에 저희 한국심리학회의 15개 분과가 모두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체계적으로 분과학회 간 연계가 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현 49대에서도 이러한 점에 주안점을 두고 다양한 정책을 실현하고 있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향후 50대 한국심리학회에서 현재의 부족한 점을 더욱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심리학이 필요한 현장에서 정부부처 및 유관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MOU를 맺고, 더욱이 그러한 실용화를 위해 저희 한국심리학회 15개 분과의 학문적 성과를 연계하여 적극 활용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심리학자들이 심리치료와 상담, 심리검사개발, 자문 등을 하는 전문 인력임을 국민과 정부부처 및 유관 기관에 알리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하여 연구를 지속하고, 그 결과들에 근거하여 심리학의 실용화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49대에서도 조현섭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들과 여러 회원분들이 국회자살포럼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 사회 내 심리전문가 인력을 투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을 확장해서 지역사회 내 심리지원센터의 모델을 제시하여 학회원들이 적극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현 법무부, 경찰청, 법원, 병무청, 교육청 등의 국가 및 공공기관은 물론, 각 기업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심리학과 관련된 새로운 정부부처와 MOU를 체결하고 심리학과 관련된 연구 영역을 개발해서 회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우리사회 내 심리사회적 문제들을 전문적으로 진단하고, 저희 회원들의 연구결과들을 적극 활용하여 각 정부부처별 정책을 선제적으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분과학회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내에 TF팀을 구성하여 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의 과학성에 근거하여 심리학의 실용화와 대중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한국심리학회 회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한국심리학회의 기초연구 역량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학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역시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심리학의 응용분야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초심리학의 연구가 바탕이 되어야함을 누구보다

도 잘 알고 있기에 기초심리학의 연구역량과 성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초심리학 분야의 연구비를 신설하고, 기초심리학 분야의 신진학자를 위한 연구비 및 포상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한국심리학회 내에 연구기술지원단을 설립하여 학회원들을 위한 방법론 교육을 정례화하고, 정회원뿐만 아니라 준회원을 위해서도 경제적 부담이 없는 연구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예: 연차학술대회 때 연구상담부스 운용, 온라인 상담 등). 또한 정부부처별로 공공연구를 위한 연구과제 팀을 구성하여 선제적으로 국가 및 공공 R&D를 제안하여 보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연구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연구 프로젝트의 연구비 중 일정금액을 한국심리학회 발전기금으로 기부함으로써 한국 심리학의 발전을 위한 선순환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전 세계 심리학회 중 10위권 내의 위상을 가진 한국심리학회의 질적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회원들의 다양한 요구와 사회적 기대에 부합하는 다양한 전문분야의 분과학회 창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심리서비스법의 제정과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심리서비스법은 현 49대 한국심리학회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이므로 반드시 이번에 심리서비스법이 제정되도록 최선을 다해 진행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심리서비스 활성화와 법제정을 위한 회원 공청회 및 국회 토론회, 전문컨설팅업체에 의한 용역수행, 국가부처 및 국회위원실과의 지속적인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현 49대 한국심리학회 때 심리서비스법의 제정이 되지 않는다면,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 이유를 분석하여 50대 한국심리학회 때는 반드시 제정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저희 한국심리학회 회원들의 바람대로 심리서비스법이 제정된다면, 저는 50대 한국심리학회 회장으로서는 심리서비스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2019년 6월 24일 현재, 한국심리학회 내 각 분과의 최상위 자격증인 심리전문가나 심리사 1급은 3,778명 정도입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공인된 심리학자들이 법적인 지위와 보호 하에 국민들에게 심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Licensed Psychologist 제도를 입법화하는 국가전문자격증 제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회원들과 적극 소통하여 저희 한국심리학회 회원들의 권익은 물론, 더 이상 국민들이 비전문가에게 심리상담을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심리서비스법을 운영하는 국가 책임부처로서 저희 한국심리학회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적정 부처(예: 국무총리실)내에 심리지원부(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고, 심리서비스를 실행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국가공인심리사가 공공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근거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지역사회 중심으로 민간영역에서는 기존에 회원들이 운영하던 센터를 국가가 인증해주는 방식을 통해 더욱 공신력이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국회를 설득하고, 심리서비스가 국민을 위한 필수 서비스임을 대국민 홍보를 통해 알림과 동시에 미국심리학회, 영국심리학회 등의 해외심리학회와 연계하여 한국에서의 국가공인심리사 자격의 법제화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심리학회 회원들의 권익과 학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한국심리학회는 회원 여러분들의 참여와 회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심리학회는 회원들을 위해 노력할 기본적인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회원들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전문성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제가 앞서 언급한 내용들을 추진할 것입니다. 저는 심리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국가와 공공, 민간영역에서 더 많은 일 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며, 회원들이 더 나은 대우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애쓸 것입니다. 또한 회원들의 소중한 연구 성과가 그에 합당한 법적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연구 성과를 지적 재산권으로 보호하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한국심리학회 회장이 추천하는 임시위원회로 회원권익위원회를 신설하여 회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즉, 학회 홈페이지에 회원의 일자리 공고, 애로사항 해결코너(Q&A)등을 설치하여 회원들의 목소리를 한국심리학회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심리학 직업 박람회를 열어 심리학자들의 취업 안내 및 심리학자들이 사회에 진출한 다양한 분야를 소개하고 담론을 형성하는 기회도 가지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혹은 각 분과학술대회) 개최 시 저희 15개 분과의 회원들이 정부부처와 기관, 유관 기업, 연구소 등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박람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한편 법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학회수익 사업의 실시, 기부금 및 발전기금 유치를 통해 회원들이 더 적은 경제적 부담으로 각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기 위한 학회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리학 전공 학생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공부할 수 있고, 심리학의 전문성이 보호되고 발휘되도록 학생들 및 교수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한 후 심리학과 전공 인증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학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국제심리학회와의 학술 및 정책연대를 활발하게 하겠습니다. 국제교류협력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여 해외 여러 심리학회와 학술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중·일 3국의 심포지엄을 활성화하며, 우리 한국심리학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개발도상국의 심리학회를 적극 후원함으로써 세계 10대 심리학회에 속하는 우리 학회의 위상에 걸맞게 한국 심리학의 세계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제가 위에 제시한 여러 내용들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회원뿐만 아니라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한국심리학회 내 언론대응과 홍보를 위한 공식 유튜브 채널과 사이버 자료실 등을 만들어 운영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은 회원들과 소통할 내용, 심리서비스법 실시의 근거가 되는 연구결과, 새로운 선제적인 정책을 입안하기 위한 연구 결과 등을 쉽게 알릴 수 있고 효율적으로 공유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회원 여러분! 저희 한국심리학회는 이제 규모나 역할 면에서 국내외 어느 학회에도 뒤지지 않는 매우 전문적인 학술 단체입니다. 또한 만 73년의 역사를 지닌 저력이 있는 전문가 단체입니다.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이제는 회원의 권익을 강조하고, 국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문가의 윤리를 중요시 여기는 학술 단체로서 더욱 발전하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한국심리회장으로서는 여러분을 섬기고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그동안 임상, 학교, 중독, 발달의 각 분과학회에서 전문자격증을 취득하고 활동한 제 경험을 바탕으로 각 분과학회의 전문성을 강조하면서도 더욱 화합하고 교류하고 통섭하는 한국심리학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처럼 “심리학을 기반으로 삶의 질 증진과 성숙한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한국심리학회”가 되도록 노력하는 회장이 되겠습니다.

저에게 50대 한국심리학회 회장으로 활동할 기회를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한국심리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건강하시고 모두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6월 24일 제 50대 한국심리학회장 후보 장 은 진 올림.